

날아오는 공을 피하지 마라!



서울시청 핸드볼감독
임오경



영화의 실제 주인공 임오경 HAND BALL 인생 34년

플레이어 경력 28년

올림픽 3회 출전

세계선수권 2회 출전

일본 히로시마 플레잉감독

現 서울시청 핸드볼 감독



수상경력

1990 대통령훈장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우승

1992 청룡장 수상

1995 세계선수권대회 우승(MVP, BEST 7)

1996 애틀랜타 올림픽 준우승(득점왕, BEST 7)

1996 국제 핸드볼 연맹(IHF) MVP 선수

2003 세계선수권대회 3위

2004 아테네 올림픽 준우승(세계AP통신 BEST10)

2007 일본 히로시마 시민상(한국인최초)

2009 YWCA 젊은 여성 지도자상

2012 자랑스러운 한국체대인상

2014 한국여성체육 지도자상

2015 스포츠 닥터스 최우수 봉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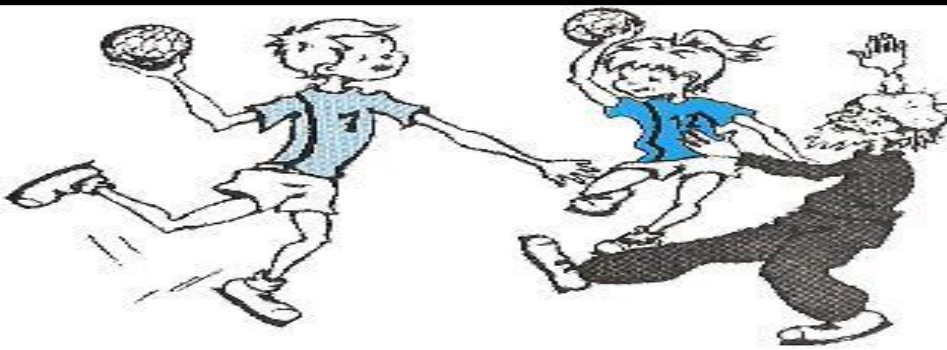
경력사항

- 2008 전 MBC 스포츠 핸드볼 해설위원
- 2008 현재 엄홍길 휴먼재단 이사
- 2008 현재 3사 다수 프로그램 출연 중
- 2010 현재 대한체육회 선수인권위원회 위원
- 2009 현재 한국 여성스포츠 회 이사
- 2011 현재 대한핸드볼협회 상임이사
- 2012 전 한국여자주니어대표팀 감독(최초여자감독)
- 2012 전 한국지식인협회 홍보대사
- 2012 현재 SBS 핸드볼 해설위원
- 2012 한국체대 석사
- 2012 전 체육진흥공단 비상임이사
- 2012 고대 글로벌리더 최고 위 과정 수료
- 2013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위원
- 2014 한국체대 체육史 이학박사
- 2015 대한민국 스포츠 합창단 단장
- 2016 (주)파베로 홍보이사

나의 어릴 적 **꿈**은?

Passion Designer

초등학교 4학년 핸드볼과의 인연





女핸드볼 올림픽2連覇

구기 사상 첫 위업
한국, 11번째 금 6위에
바르셀로나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24년 만에 다시 금메달을 차지한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6위에 오른다.

남浦공단 合作 건설
金大中 金南玄 金南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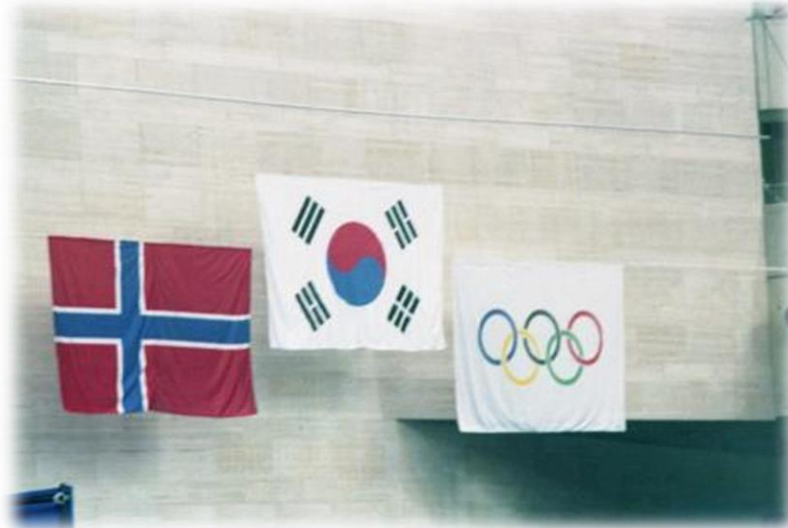
對北 정책 전면 재검
政府, 北일·南부총리 訪韓

도전 1막 : 선수 임오경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지옥훈련

“눈을 감는 것도 두렵고
눈을 뜨는 것도 두려웠다.”

1992년 Barcelona Olympic 금메달



女핸드볼 올림픽 2連覇



1995년 World Championship 우승



1996년 Atlanta Olympic 은메달



WORLD'S BEST HANDBALL PLAYER



2003년 World Championship 3위



경향신문 "아줌마들 설쳐 올림픽금 찾아와야죠"
기사입력 2003-12-18 18:42



여자핸드볼의 만년니 오성옥(왼쪽)과 임오경이 17일 인천공항에서 일본에 출국하기 직전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다. <인천공항/서성일기자>

=여자핸드볼 임오경·오성옥=

결혼하고 아이 낳았으면 보통 여자선수로는 끝이다. 게다가 올림픽 금·은메달에다 세계선수권 우승 금자탑까지 쌓았으니 과거 영광을 추억삼아 편히 쉴 만도 하다. 그런데 두 아줌마선수는 국가대표 정년도 모르는 모양이다. 임오경(32)과 오성옥(31·이상 일본 메이플레드)은 한국 90년대 여자핸드볼의 골든에이지를 연 주역이다. 구기

종목 역사상 신화로 남아있는 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 이은 95년 세계선수권 우승 역장에도 그들이 있었다.

2004년 Athens Olympic 은메달



연합뉴스 여자핸드볼 슛 날리는 임오경
기사입력 2004-08-24 00:21



3일 밤(한국시간) 파빌리온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열린 올림픽 여자핸드볼 한국과 프랑스의 예선전에서 한국의 임오경이 수비수를 제친뒤 슛하고 있다./전수영/체육/핸드볼/ 2004.8.23(아테네=연합뉴스) swimer@yna.co.kr



도전 2막 : 일본 행

가장 듣기 싫은 말?
가난, 공부 못해서 운동한다

.

24세 최연소 감독의 홀로서기



감독 겸 선수 14년간 (당시 24세)



- 일본 내 최연소 감독취임
- 역대 연속 기록 8연패 우승 및 총 27회 우승
- 일본 내 주요 4개 대회 그랜드슬램달성
- 최우수 지도 감독상 24회
- 일본기자단 선정 인기투표 8년 연속 인기상
- 일본 히로시마 시민상(한국인 최초)
- 일본 30주년 역대 BEST 7



그러나 시련이...



여자? 너무 싫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후유증





도전 3막 : 한국으로의 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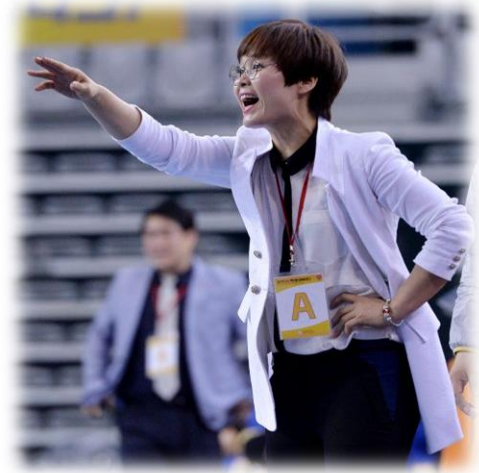
**“여성 첫 감독을
바라보는 시선들”**

여자라서 안 된다?



한국핸드볼 최초 여성 감독

생활 속 언니



코트 위의 악녀

주니어 국가대표 여자감독

**“잘 대해주는 동료보다는
잘되게 해주는 동료가 되어라.”**



그리고... 창단 6년 만에 우승 !!!

핸드볼은 심판도 있지만
응원 해 주는 관중도 있었다.



공부하는 리더



내가 가장 잘 한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나는, 여러분들은 리더?



Leader ?

(구성원을 가진 지도자)

Leadership ?

(구성원 + 목표 + 성과)

**“누구나 리더는 될 수 있지만
모두가 리더십을 갖추지는 못한다.”**

나에게 행복은? 지옥훈련을 극복한 후

“행복의 주체는 ‘**나**’이고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

“지금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I am a Woman, I am a History

코트 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오늘도 도전한다!